

전주국제영화제 수상작 다시보기

'폴링 인 전주' 28일부터
전주영화제작소 등서 개최
4개부문 34편 상영작 구성



'폴링 인 전주' 포스터

'제18회 전주국제영화제' 수상작과 주요 상영작을 다시 만날 수 있는 행사가 펼쳐진다. (재)전주국제영화제 조직위원회(집행위원장 이종직)는 전주국제영화제 일상화 프로젝트 일환으로 'FALLing in JEONJU'를 마련하고, 오는 9월 28일부터 10월 1일까지 전주영화제작소와 남부시장 일대에서 행사를 갖는다. '2017 FALLing in JEONJU'는 총 4개 부문·34편의 상영작으로 구성돼 있다. 'Focus on Short Films'는 전주시민미디어센터 영시미에서 진행되는 '시민영화프로그램' 프로그램에 참여한 교육생들이 한국단편경쟁 섹션에서 선정한 작품들을 상영하는 자리다.

던트, '국정교과서' 등 영화들이 포진돼 있어 영화제 기간에 아쉽게 관람을 놓친 이들에게 좋은 기회가 될 전망이다. 또한 전주국제영화제에서 수선했던 영화 '파리의 밤이 열리면'을 비롯한 파리 관련 영화들을 엮은 '파리의 영화가 열리면'과 국내 미 개봉작 '더 애플 오브 마이 아이', '콜럼버스' 등을 만나 볼 수 있는 'Special Choice' 섹션 등으로 프로그램의 다채로움을 더했다. 영화제 사무처는 "올해로 3회를 맞이한 'FALLing in JEONJU'는 전주 시민 및 관객들과 소통하고, 지역문화를 풍요롭게 만들자는 취지로 기획됐다"며 "행사는 다양한 영화들과 게스트 초청은 물론 다채로운 이벤트 등으로 많은 볼거리를 제공할 것"이라고 했다. '2017 FALLing in JEONJU'의 프로그램 및 이벤트 일정, 초청 게스트 등의 세부 사항은 추후 전주국제영화제(www.jiff.or.kr)와 전주영화제작소(theque.jiff.or.kr)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정해은 기자

익산예술제 개막식 축하음악회

(사)한국음악협회 익산지부에서 오는 9월 8일 오후 7시 배산체육공원 야외공연장에서 열리는 제49회 익산예술제 개막식에 축하음악회를 선보일 예정이다. 이번 (사)한국음악협회 익산지부에서 가을 밤의 감성과 정취를 만끽할 수 있도록 전 세대를 위한 클래식 음악, 합창 공연, 퓨전 오케스트라 등 '예술로 화합'을 보여 주기위해 다양하게 기획하였다. 한편 종교연합 합창단들 무대는 다른 종교의 벽을 넘어 '예술로 화합'하는 의미 있는 소통의 하모니 무대에 벌써부터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으며, 올해 어린이 서동우 합창제 대상을 수상한 송학초 팀도 퍼포먼스를 결합한 공연으로 시민들의 흥겨운 반응이 예견(예상)된다. 또한 7080세대 음악을 새롭게 재편곡해 익산 팝스 오케스트라의 연주를 통해 시민들께 선보일 예정이다. /익산=장양원 기자

도-전북문화관광재단, 해외전시 지원사업 순조

작가 13명에게 1억4000만원 지원

전북도와 전북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이병천)은 '2017 해외전시 지원사업'을 순조롭게 진행하고 있다고 지난 31일 밝혔다. 올해 재단은 미국, 독일, 프랑스, 중국 등 8개국에서 진행되는 해외전시를 위해서 13명의 작가에게 총 1억4,000만원을 지원한다. 사업과 관련 재단은 지난 30일 '해외전시 작가 간담회'를 열고, 해외전시를 완료한 작가와 준비 중인 작가들이 함께 모여 상반기에 진행된 해외전시의 성과를 공유했으며, 해외 전시 진행에 있어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고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간담회에서 작가들은 '해외전시 지원사업'으로 전북의 미술작가들의 시야가 넓어지고, 예술적으로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개인전을 비롯한 아트페어와 레지던시 참여까지 활발하게 지원해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해외전시 지원사업은 지난 4월 조현동 작가의 뉴욕 개인전을 시작으로 7월과 8월에는 독일·중국·프랑스·호주 등에서 정소라·장동국·윤철규·김중대 작가 등이 전시를 진행했다. 9월부터는 독일(이주리·이희춘·장영애 작가), 이탈리아(이기립 작가), 스위스(박현진 작가), 프랑스(류재현 작가) 등에서 전북의 미술역량을 선보인다. 재단은 오는 12월 8~14일 전북예술회관에서 '2017해외전시 지원사업' 결과보고전시를 진행하고 성과공유 발표회를 개최하는 등 사업 성과를 도민과 함께 나눌 예정이다. /정해은 기자

'사람의 가치, 우리와 같이'

군산 장애인 인권영화제, 3일부터 사흘간

군산시장장애인가족지원원센터(센터장 이승복)가 '사람의 가치, 우리 같이'를 주제로 제3회 군산장애인 인권영화제를 개막한다. 9월 3일부터 은파물빛다리광장에서 개막식과 개막작 상영을 시작으로 4일과 5일에는 군산어린이공연장(구 KBS방송국)에서 장애인 인권영화를 상영한다. 올해로 3회를 맞이한 이번 영화제는 전체 영화를 무료로 상영하며 3일 개막작인 '엘리베이터' 상영시에는 작품의 감독이자 가수인 강원래 씨가 감독과의 대화 시간을 펼쳐 군산시민들과 만날 예정이며, 4일에는 청각장애인 가족의 생활을 다룬 영화 '비라를 벨라에'를 포함한 총 5편의 영화가 상영되고 5일은 정선 장애인들을 소재

로 한 '위 캔 두 댓!'을 비롯한 5편의 영화를 만날 수 있다. 영화제를 통해 소개될 총 11편의 영화들은 장애인 시설의 거주자와 이용자들이 어려운 환경을 헤쳐 나가는 이야기를 관객들에게 들려주며 함께 사는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마음이 지역사회에 널리 퍼지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승복 센터장은 "올해에도 좋은 영화들이 영화제를 통해 만나게 되었다"며, "영화제의 다양한 영화들 감상하며 지역사회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들의 교류 장을 해소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정해은 기자



국립전주박물관(관장 김승희)은 문화재보존수복회(회장 류일용)와 공동으로 특별전 '문화재 재현의 방법과 모색'을 9월 1일부터 10일까지 국립전주박물관 시민갤러리에서 갖는다. 원광대학교 중앙대학원 회화문화재보존수복학과 석·박사 동문들로 구성된 '문화재보존수복회' 15주년을 기념해 열리는 이번 전시는 사회 다방면에서 활동하는 작가들이 선현들의 얼이 담긴 회화문화재를 보존하기

국립전주박물관 문화재보존수복회 15주년 기념 특별전 문화재 재현 방법 찾다

위한 재현의 방법들을 심도 있게 묘사한 작품들로 구성되었다. 전시에 참여한 교수 및 작가들은 예술교육 활성화에 선도적 역할을 하며 한·중·일 교류전, 한·일 교류전, 그림전과 개인전 등 작품 활동을 꾸준히 하고 있다.

선현들 얼 담긴 회화문화재
보존 방법 심도있게 묘사
전시는 1일부터 열흘간

특별전은 일본에서 원로작가로 활동하고 있는 일본작가 미야모토 미시오의 석굴벽화도 전시함으로써 국제적 전시로의 확장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또한 최근 문화재보존에 대한 새로운 영역으로 떠오른 원작의 재현이 각광을 받으면서

학계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만 하다. 이는 앞으로 우리가 맞닥뜨리게 될 현실과 가상의 경계가 무너지는 4차 산업 혁명시대에 오리지널에 대한 정신을 다시 한 번 생각하게 하는 대목이다. 국립전주박물관 관계자는 "이번 특별전을 통해 문화재의 재현을 알아보고, 우리 문화재의 소중함과 문화재보존수복에 대한 관심을 끌어내는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정해은 기자

한국의 '송크란' 를 꿈꾸다!

무주 반딧불축제와 함께하는

2017 무주 남대천 물 축제

2017. 8. 26(토)~27(일) / 9. 2(토)~9. 3(일) (4일간)
전라북도 무주군 무주읍 남대천

워터 빌리지

남대천 썸머 콘서트

물싸움 WATER로 전쟁

패밀리 체험존

물총, 우비, 비치볼 등을 구입할 수 있는 워터로산이 산시 운영됩니다. 주최·주관·무주읍·무주읍발전협의회 | 문의/063)320-5702/324-3474



모던락 밴드 텐마이즈 소리문화전당서 공연

한국소리문화의전당은 신인 예술가들을 위한 인큐베이팅 프로그램 '프로젝트 스톨몬스터'를 운영하고 있다. 프로젝트 스톨몬스터는 아티스트는 무대 연출에 집중하고 전당은 기획과 홍보 등 행정적인 부분을 책임져 창의적이고 실험적인 공연예술을 선보이는 프로그램으로, 2015년부터 진행돼왔다. 오는 9월 2일 오후 5시 명인홀 무대에 오르는 뮤지션은 '텐마이즈'다. 아름다운 멜로디에 감성적인 가사를 날카롭게 표현하는 모던락 밴드.

2015년 6월 디지털 싱글 'One fine day'를 발표했고, 같은 해 8월 첫 EP '눈은이의 밤'을 발매했다. 이후 광주 유니버시아드(2015년) MBC 난장 페스티벌에서 동상, 전주MBC JUMP 창작가요제(2016년)에서 장려상을 수상하는 등 좋은 평가를 받아 왔다. 현재까지 클럽과 페스티벌 등 다양한 무대에서 라이브를 실시해 인상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정해은 기자